

원장 살해 시도·집단 성관계... 광주 정신수련단체 업기 행각

북부경찰, 71명 입건 ... 탤런트·의사·교사 등 포함



수련회 원생 71명이 공모해 원장 살해를 시도하고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업기 행각을 벌인 광주 모 수련원 건물 외관(위)과 내부 시설(아래). /위직탐기자 jrwi@kwangju.co.kr

정신 수련단체 성격의 수련회 원장을 살해하려던 회원 7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특히 회원 이탈과 포섭 목적으로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하고, 향정신성 약품을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등 업기적인 범행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북부경찰은 17일 H수련회 회원 J(53)씨 등 회원 71명을 살인미수·절도·협박·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07년 12월 5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H수련원에서 청산가리와 양

잿물을 탄 커피를 건네고 계단에서 밀어뜨리는 등 최근까지 23회에 걸쳐 H수련원 L(여·55) 원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H수련원에서 향정신성 약품인 '졸피뎀'을 탄 음료수를 1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마시고, 2007년 6월 10일께 헌금함에서 현금 1천5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최근까지 모두 18억5천만원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피의자들 중에는 30대 중반의 탤런트 K씨를 비롯, 교사(7명)·의사(2명)·공무원(1명)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L원장을 제거함으로써 H수련회를 장악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J씨 등은 경찰에서 "정신 수련방법 중 경지에 오르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아는 L씨로부터 이를 배웠고 범행을 공모했다. 훔친 돈은 활동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특히 졸피뎀을 먹인 뒤 회원 간 집단 성관계를 강요, 이를 동영상으로 찍은 뒤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장면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회원들을 포섭하고 이탈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

다. 경찰은 이들이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졸피뎀' 세 알을 증거품으로 압수했으며, "우리와 범행을 모의한 의사으로부터 이를 구입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구입 경로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자진출석해 범죄사실을 인정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은 점 등을 참작해 전원 불구속 수사기로 했다.

경찰은 피의자 71명 중 주동자인 J씨 등 12명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월 10일 L원장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원침 (7982) 김장두



광양상의 항소심서도 불허

광주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방극성)는 17일 순천·광양상의가 전남도를 상대로 낸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승소판결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의 광양상의 설립인가 처분은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이 정지돼 법원 등 기만을 앞두고 있던 광양상의는 사실상 설립이 어렵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살해 시도 23차례 실패 ... 원장은 왜 뒤늦게 고소했나

■ H수련회 사건 의혹 투성이

사라진 18억 의문 ... "배후세력 있다" 주장도

광주 H수련회 L(여·55) 원장이 지난 2006년 6월부터 3년여간 회원 71명으로부터 포섭 시도를 23차례나 당한 사건에 대해 광주북부경찰은 17일 오후 1시께 이 사건을 H수련회를 장악하려는 회원들이 벌인 '업기적 사건'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그러나 사건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고개를 갇혀가게 만드는 것들이 많다. 우선 피의자들이 L원장을

상대로 23차례나 살해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점과 L원장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에 뒤늦게 고소한 점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에서 H수련회의 비리를 내사 중"이라는 소문을 듣고 난 뒤 L원장이 피의자들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소환 당시 71명의 피의자들이 경찰의 출석 요구에 자진 출석해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는 점

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을 진두지휘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주장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또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피의자 71명 중 구속된 피의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다.

이밖에 도헌금함에서 3년여간 무려 18억5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H수련회 측에서 전혀 몰랐다는 점과 L원장에 대한 살해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 재수사 또는 추가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17일 오후 1시께 진행된 수사 결과를 보고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광주에 본원을 둔 H수련회는 광주와 순천·서울·부산 등지에 모두 6곳의 수련원을 두고 있다. H수련원은 유사 성격 단체의 M수련원과 수련원 건물 소유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

특히 지난 5월에는 이 수련회 회원 황모(47)씨가 M수련원 박모(4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이다. 황씨는 이번 살인 미수 사건 피의자 71명에도 포함돼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지하철에 '인권테마열차'

인권위 광주사무소 1년간 운행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소장 이정강)는 "18일 오후 2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인권테마열차 발차식을 갖고, 향후 1년간 운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발차식에는 김옥신 인권위 사무총장, 황주홍 감진군수, 오행원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하며

추진현황 보고, 인사말, 테이프 커팅 식 등이 진행된다.

인권테마열차는 내년 12월까지 운행하고, 지하철 2량에 있는 광고면을 활용해 총 49종(98장)의 인권 관련 콘텐츠를 게재하며, 분기별로 콘텐츠를 교체할 계획이다.

전시될 콘텐츠는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온 이주여성들의 일상, 학생들이 기록한 인권 느낌표, 일상의

차별 사례, 인권 포스터 등이다. 또 이날 인권열차에는 강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출신지별 자국어와 한국어로 직접 쓴 인권조약문을 선보인다.

한편 인권위와 감진군, 광주도시철도공사는 지난 4개월간 인권테마열차 콘텐츠 기획·제작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신종플루 의심 진료 환자

전남대병원 1만명 넘었다

10명 중 3명 확진 판정

전남대학교 병원은 신종플루가 의심돼 병원을 찾은 환자가 1만명을 넘었으며, 확진 환자중 대다수가 20세 미만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전남대에 따르면 지난 11일까지 방문 환자 1만793명중 8천107명이 RT-PCR(확진검사)을 해 29%인 3천93명이 신종플루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신종플루 환자들은 남자가 1천559명, 여자가 1천534명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세 미만 152명, 3~9세 887명, 10대 1천279명 등 20세 미만이 75% 가량인 2천318명을 차지했다.

또 20대가 419명, 30대 164명, 40대 96명, 50대 55명, 60대 31명, 70대 이상 10명이었다.

하루 동안 환자가 가장 많았던 날은 지난 달 9일로 428명이었으며, 이날 들어서는 100명 내외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병원 측은 밝혔다.

감염내과 장희창 교수는 "감염자 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집단면역이 형성돼 환자수가 줄고, 예방접종도 효과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역대 건축자재 절도

순천경찰, 2명 구속

순천경찰은 17일 전국의 아파트 공사현장을 돌며 역대의 건축자재를 훔친 박모(51)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3일 순천시 조례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 창고에 침입해 전선 300m(시가 2천500만원)를 훔치는 등 지난 10월부터 전국 공사현장에서 10차례에 걸쳐 전선과 동파이프 등 1억1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하태민기자 hajia@

경남부동산
건강과 풍격의 일빙듬으로...
[주거] [투자] [상업] 등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문의처: 0511-0444, 010-6603-0405

경남부동산
전국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등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제공
문의처: 0511-0444, 010-6603-0405